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삶의 질 분석 및 지역격차 해소 방안

—천안시와 아산시의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을 중심으로—

2015. 12

연구책임자: 현대용

공동연구원: 최정우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1
2. 연구의 방법	1

II. 이론적 배경

1.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적 정의	2
2. 추진배경	2
3. 기존 권력과의 차이점	3
4. 사업분야	4
5.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6
6. 네트워크 도시이론(Network City Theory)	7
7. 지역협력이론	10

III.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분석

1. 주민 인식 분석 대상 및 방법	12
2. 분석결과	13
3. 주민 간 인식의 평균비교검정	19

IV. 정책제언

참고문헌	24
------	----

부록	25
----	----

표 차례

〈표 1〉 지역행복생활권과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비교	3
〈표 2〉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현황	5
〈표 3〉 중심지이론과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속성 비교	8
〈표 4〉 응답자 특성	12
〈표 5〉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에 대한 지역 간 인식 차이 분석	20
〈표 6〉 사업 기대효과에 대한 지역 간 인식 차이 분석	21
〈표 7〉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지역 간 인식 차이 분석	22

그림 차례

[그림 1]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이해도	13
[그림 2]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	14
[그림 3]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간 연계성	13
[그림 4] 주민행복생활권 사업의 기대효과	17
[그림 5]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	1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통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 하였으나 빈부격차, 세대 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수도권-지방 격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음
- 특히 지역 간 격차는 고질적 문제로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2000년대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취해왔지만 지역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교육, 의료, 문화 등 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기초생활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부산발전연구원, 2014)
- 이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의 삶의 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2.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범위는 생활권전문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지역위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지역 중 충청남도 우수 사례로 선정된 천안시와 아산시를 연구범위로 설정함

3. 연구의 방법

- 문헌검토
- 주민 설문조사(천안시, 아산시)
- 빈도분석 및 t-test

II. 이론적 배경

1.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적 정의

-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함
 -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중심도시, 농어촌 중심지, 인근 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임
- 지역생활권은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농어촌, 중심도시-마을로 연결되는 공공·상업 서비스 이용 공간을 기반으로 설정함
 - 지역생활권의 중심도시는 고차서비스, 농어촌 중심지(읍·면)는 복합서비스, 인근 마을을 기초생활서비스 기능을 분담함
- 지역생활에서 중심지는 주변 지역에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면 소재지, 군청 소재지, 시청 및 도청 소재지 등이 중심지 기능을 수행
-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이 시·군 경계를 넘어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생활권 설정이 필요함
 - 중심도시를 이용해야 하는 의료, 문화 등 광역생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커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를 연계하는 생활권 단위의 접근이 필요함

2. 추진배경

- 삶의 질에 중점을 둔 접근
 - 지역정책 목적은 주민이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므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중심으로 접근 필요
 -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의료·복지·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개선에 중점

○ 상생협력의 지역발전모델

- 수도권-비수도권, 도시-농어촌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어촌, 농어촌 상호 간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하는 지역발전 모델 필수적

○ 주민·지자체 중심의 지역발전정책

- 지역별 입지조건 및 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접근 바람직

3. 기존 권역과의 차이점

- 지역생활권은 기존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과 비교하여 정책목표, 권역구성 방식, 중점 추진분야 등에서 차별화

<표 1> 지역행복생활권과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비교

	중전		변경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지역행복생활권
목적	· 글로벌 지역경쟁력 제고	·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주민행복 + 지역경쟁력 증진
권역 설정	· 정부 주도 · 인위적 권역 설정	· 정부 주도 · 인위적 권역 설정	▶ 지자체 자율 ▶ 자연적 생활권 반영
권역 단위	· 2~3개 시·도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지정	· 시·군 단위로 기초생활권을 설정	▶ 주민생활, 서비스 이용 등으로 연계된 복수의 시·군
추진 기구	·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 없음	▶ 시군(자율적 협의체) ▶ 시도(조정·지원지구)
중점 분야	· 광역선도산업 육성 · 선도산업 인력양성 · 광역기반시설 확충	· 개별 시군단위의 지역개발 및 생활기반 확충	▶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주민체감형 사업 추진 ▶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육성 ▶ 지역산업·일자리 창출 ▶ 지역인재·지방대학 육성 ▶ 문화·환경, 복지·의료

4. 사업분야

○ 지역생활권사업

- 지역생활권사업은 5대 중점분야에 따라 시군 단독사업과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심사·선정하여 추진
- 시군 단독사업: 특정지역의 사업이지만 생활권 전체의 주민 불편해소 및 삶의 질 개선에 직결되어 생활권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생활권협력사업: 각종 시설·서비스의 생활권내 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통해 생활권 어디에서든지 기본적인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상의 지자체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 지역생활권사업과 별도로 지역 발전비전 및 전략에 따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상향식으로 공모·선정, 시·도와 중앙정부가 협업으로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기반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생활권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특화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2014년 신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총 36건의 사업을 선정함

<표 2> 지역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현황

구분		사업명	참여 지자체
1	서울 경기 강원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의정부, 노원, 성북
2		평안 해오름길 조성	평택, 안성
3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춘천, 화천, 양구
4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원주, 횡성
5	충청권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대전, 옥천, 금산
6		일자리 중심 Hub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증평, 보은
7		행복학습공동체 운영	증평, 청원, 진천, 괴산, 음성
8		도·농 일자리 지원 센터	단양, 제천
9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천안, 아산
10		백제숨결 따라 한걸음씩	공주, 부여, 청양
11	호남권	한뿌리 생활권 프로젝트	광주, 나주, 화순
12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
13		새일 프로젝트	익산, 전주, 군산
14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정읍, 고창, 부안
15		도농협력 농업인력지원센터	임실, 남원, 순창
16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진안, 장수
17		박물관·미술관 협력사업	목포, 해남, 진도, 신안, 무안
18		채류 종묘 배양장 공동활용	보성, 여수, 광양
19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담양, 구례, 곡성
20		치매거점병동 운영	장성, 함평, 영광
21		여객선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완도, 장흥
22		DREAM 일자리 나눔	나주, 화순
23	영남권	W-line 프로젝트	부산, 김해, 양산, 울주
24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	양산, 김해
25		신의 물방울 사업	대구, 청도
26		영남알프스 Mountain Top	울산, 양산, 밀양
27		낙강선유 명품 원예단지 조성	성주, 고령
28		스포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군위, 의성
29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봉화, 영주
30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관광	영덕, 포항, 경주, 울진, 울릉
31		경남인력 지원센터 설치	거창, 함양, 산청
32		나전칠기 연계 육성사업	통영, 고성
33	제주권	제주 올레 길 주민 행복 사업	서귀포시, 제주시
34	기타	에코힐링 벨트화 사업	영월, 단양, 영주
35		호두 특화산업단지	김천, 영동, 무주
36		DMZ사과 명품화 단지조성	포천, 철원, 연천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4)

5.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은 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며 1933년 Christaller에 의해서 제시된 정주체계 형성의 고전 이론으로서 많은 공간이론 가운데 아마도 중심지이론만큼 유명한 이론은 없음
- 그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설정한 문제의 틀은 크게 세 가지로 귀결되는데 첫째는 도시의 규모와 수, 분포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둘째는 그러한 법칙이 존재할 경우 공간조직이 어떤 모습으로 짜여지며, 셋째는 중심성에 차이가 있는 중심지들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이들이 어떤 형태로 배열되는지 등임(임석희, 1998)
- 결론적으로 그에 따르면 도시의 기원과 성장, 쇠퇴와 주민이 그 도시에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
- 도시는 중심지와 배후지역으로 구성되며, 수요 측면에서 기능이 존립하기 위한 최소 요구치와 공급 측면의 재화의 도달거리 간의 관계에서 초과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하게 됨
- 이 경우 공간조직의 모습은 각각의 중심지가 정삼각형의 꼭지점을 이루는 삼각적 자형을 이룬 상태에서 서로 경쟁적인 각각의 중심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보완지역이 육각형으로 분할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래야만 최소한의 적은 수의 중심지가 빈틈없이 모든 공간에 재화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때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한 새로운 중심지가 추가로 입지하게 되어 중심지간 경쟁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중심지 상호간에 중심성의 크기에 따라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도시분포를 나타내게 됨
- 즉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범위인 배후지역의 크기에 따라 마케팅원리, 교통원리, 행정원리 등으로 다르며 기능별 중심지 계층에 따라 중심지의 수, 규모, 거리, 기능의 위계와 종류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함
-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은 도시의 분포와 체계에 관한 공간적 질서를 일반화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직접 남부 독일을 사례로 검증

해 보였고, 이후 베리(L. J. Berry)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적지 않게 실증해 보임으로써 1960년대 이후 많은 연구의 진전이 이루어짐

- 물론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은 가정의 비현실성, 정채적 모형의 한계, 집적이익의 간과 등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비판이 따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효율적이어서 이윤효율성과 분배정의의 동시에 달성하는 공간질서의 법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실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이 중심지이론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을-농촌중심지-도시로 이어지는 중심지체계를 상정하고 있고 기능별 중심성에 따라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생활권별로 서비스를 충족시키려는 전략에는 묵시적으로 중심지이론의 개념이 원용되어 있음
- 따라서 지역생활권정책에서 중심지 체계가 중요한 것은 저차중심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고차중심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지 상호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함

6. 네트워크 도시이론(Network City Theory)

-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 간 연계에 의한 다중심 도시체계 또는 네트워크 도시이론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음
- 과거의 도시발전은 단일 도시 중심으로 동심원이론, 토지이용이론, 중심지이론 등으로 설명해 왔으나 Camagni와 Capello(2004)에 의해 네트워크 도시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전문화된 중심지간의 수평적·비계층적 관계를 통한 도시 성장이 새로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네트워크 도시이론은 최근 선진국의 전문화된 중소도시들이 두드러지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적실한 이론으로서 지역발전에서 네트워크는 지역 내 혁신과 학습역량의 증진을 위한 수단의 차원을 넘어 도시의 기능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네트워크 도시는 2개 이상의 도시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상호 협력적 상황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도시임(Capello, 2000)

- 즉 전문성을 지닌 도시들이 상호간 수평적·비계위적 관계를 통하여 외부성을 공급받게 되며, 각 중심지간에 존재하는 자본, 정보, 지식, 기술, 인력, 제품 등의 상호 교류를 통한 보완적 네트워크를 의미함
- 네트워크 도시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Capello(2000)는 공간행태에 따라 계통적 네트워크, 보완적 네트워크, 시너지 네트워크 등 세 가지 네트워크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Batten(1995)은 도시 간 연결구조에 따라 하나의 수위도시가 중심이 되는 단핵도시, 두 도시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연담도시, 셋 이상의 도시들 간의 연계행태인 네트워크 도시로 유형화하고 있고, Champion(2001)은 도시권 성장단계에 따라 중심형, 결합형, 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개별 도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목적은 효율성 목적, 시너지 목적, 능력증진목표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지역의 수가 많고 네트워크의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지역발전의 성과가 커짐
- 네트워크 도시이론은 도시 간 관계를 중심지이론과 같이 비중첩형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공간계층성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경쟁력 훼손이나 규모 확대가 없이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음
- 즉 중소도시들이 고유하고 특수한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도시 간 기능적 보완을 통하여 규모의 열세로 인한 부족한 기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소도시가 양적인 성장을 도모하지 않고서도 환경의 쾌적성이나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도시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표 3> 중심지이론과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속성 비교

중심지이론	네트워크 도시이론
중심성	결절성
규모 의존성, 단핵 의존	규모 중립, 상호 의존
수위성, 종속성	유연성과 보완성 지향

동질 제화·동질서비스	이질적 또는 특화서비스
수직적 접근성	수평적 접근성
일방 흐름	양방향 흐름
교통비	정보비
공간적 완전경쟁	가격 차별성과 불안전 경쟁

자료: Batten(1995), 김용웅 외(2009)에서 재인용

-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에서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여짐
- 당초 지역생활권정책이 정부정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정책을 염두에 두고 국책연구원이 주도하여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그 이론적 배경에 네트워크 도시이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실제로 정부는 지역생활권정책에서 생활권 구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지자체 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음
- 즉 생활권은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지자체간 물리적 접근성, 기능적·지리적 관계,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자체간 협력의지 등 연계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권 내 지자체간 보완적 연계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 때문임
- 또한 정부는 생활권을 중추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어촌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모든 유형에 걸쳐 생활권 내 지자체간 수직적 결합 못지않게 수평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중추도시생활권의 경우 대도시 중심형과 별개로 네트워크 도시형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역생활권정책에서 네트워크 도시이론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음

7. 지역협력이론

- 지역생활권운영 및 작동의 메커니즘은 다른 아닌 생활권 내 지자체간 연계협력에 있고 특히 지역생활권정책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서부터 시도했던 사업 단위의 단발성 연계협력에서 진일보하여 제도에 근거한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지역생활권정책의 성패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이론모형으로는 교환모형, 협상모형, 공동생산적 접근모형, 협력과정모형 등을 꼽을 수 있음
- 교환모형은 지자체간 협력 관계를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모형으로서 모든 조직은 근본적으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된다고 가정하고 지자체간 관계유지에서 상호 편익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협력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임
- 교환모형의 특징으로는 조직 간의 관계형성 특히 협력적 관계구축을 힘과 권력적 우위에 의한 비대칭적 교환관계가 아닌 조직 간의 상호이익을 수수하는 상호의존적 또는 대칭적 교환관계로 파악하는 점이 특징임
- 다음으로 협상모형의 입장에서 지자체간 협력이란 어떤 공통된 문제에 대하여 관련 자치단체간의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나가는 협상, 즉 일종의 의사결정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음(이달곤, 2000)
- 이 입장에서의 지자체간 협력은 협력의 긍정적 효과 즉, 상호이익의 증진에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이러한 효과를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협상력이라는 점을 강조함
- 공동생산적 접근에서 지자체간 협력은 참여 지자체가 목적지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생산을 창출하는 과정 즉, 공동생산적 참여과정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 입장의 협력에서는 지자체간 상호작용이 대칭화 된 수평적 관계에 기초하고 의사결정이 패턴이 분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지자체간 조정·협상과정을 거쳐야 함
- 따라서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은 참여자의 개인적 속성과 집단적 특성에 영향을 받

게 되는데 협력과정의 빈도와 강도는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작용적 성향이 클 때 활발하게 발생함

- 마지막으로 협력과정모형에서는 산발적 또는 체계적 요인에 의한 환경변화가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이때 지자체간 협력을 유발하는 산발적 요인으로는 돌발적 문제의 심각성, 단체 간 직원들의 유대감, 외부자금의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체계적인 요인으로는 기관의 실적향상 욕구가 대표적임
- 어떤 조직 혹은 지자체가 협력의사를 실질적 협력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지자체 간 전문성, 협력의욕, 제도적 역량이 필요하며, 지자체간 협력적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이익, 전문가적 판단, 정치적 이점, 문제해결, 불확실성 경감 등의 협력요인이 종합적으로 구비되어야 연속적인 협력 단계를 이어갈 수 있음
- 위에서 언급한 여러 이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이유는 협력을 통하여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지자체들은 협력을 통하여 공공행정의 효율성 증대, 투입대비 추가이익의 시너지 창출, 지자체의 제도적 역량을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에서도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임
- 이러한 까닭으로 지역행복생활권에서도 정책의 가장 큰 초점을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데 두고 있으며 생활권 선도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생활권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Ⅲ.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분석

1. 주민 인식 분석 대상 및 방법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천안시 및 아산시 지역 주민 각각 1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천안시청 및 아산시청을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총 200부의 설문지 중 180부가 회수되었으나 통계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설문지 일부를 제외하고 분석에는 총 139부를 활용하였음
- 분석에 활용한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4> 응답자 특성

특성	구분	명(비율)	특성	구분	명(비율)
성별	남	65(47.1)	학력	고졸 이하	44(31.6)
	여	73(52.9)		대졸	82(59.0)
	무응답	1		대학원 이상	13(9.4)
거주지역	천안시	80(57.6)	소득	200만원 미만	48(34.5)
	아산시	59(42.4)		200~400만원 미만	53(38.1)
연령	20대	26(18.7)		400~600만원 미만	33(23.7)
	30대	40(28.8)		600만원 이상	5(3.7)
	40대	44(31.6)	총 응답자		139
	50대	23(16.6)			
	60대 이상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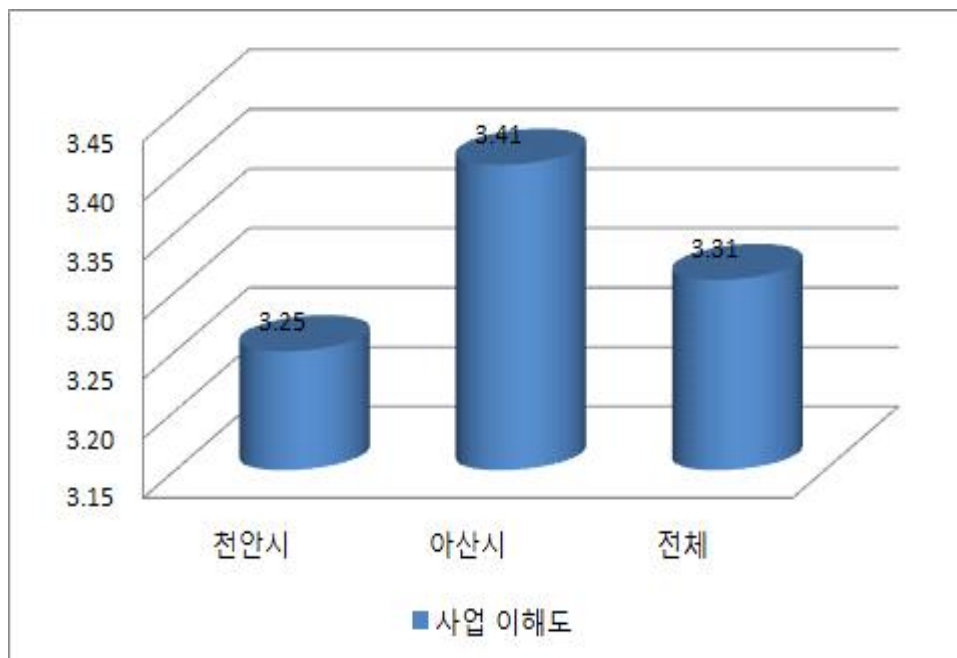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1)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세부사업에 대해 천안시 및 아산시의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전혀 모른다”를 1점, 그리고 “잘 알고 있다”를 5점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이해도는 3.31점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업의 이해도에 대해 천안시민과 아산시민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민에 비해 아산시민의 사업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아산시의 경우 복합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을 천안시에 제안하는 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 지역주민들에게도 천안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1>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이해도

(단위: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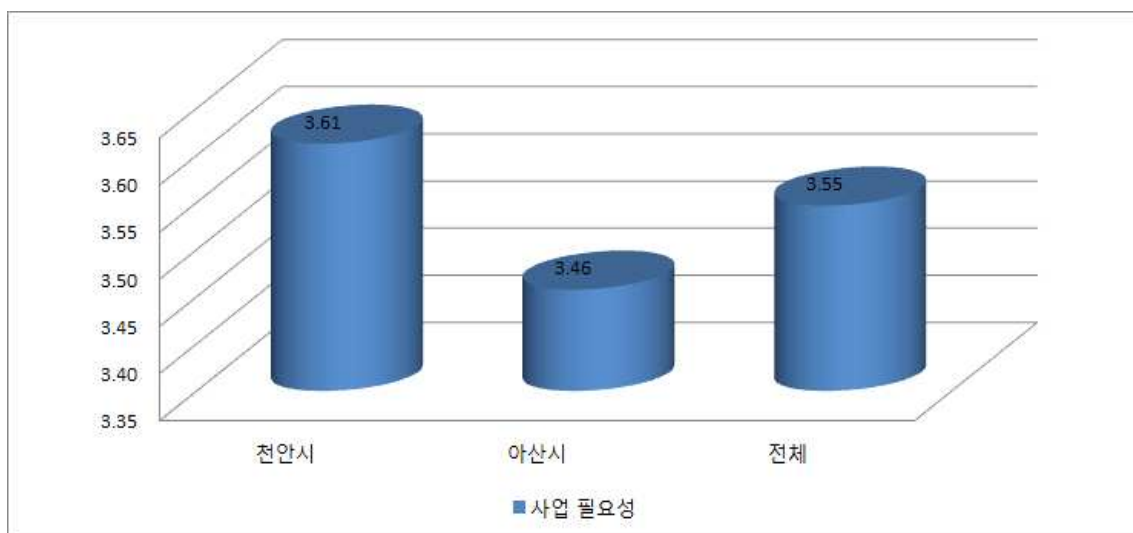


2)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매우 필요하다”를 5점,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하여 5점 만점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3.55점으로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나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천안시와 아산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의 주민들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는 3.61점으로, 아산시의 3.46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사업에 이해도에 있어서는 아산시가 높았던 결과와는 달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천안시의 주민들이 보다 높은 공감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천안 아산역의 명칭으로 촉발된 지역 간 갈등의 해소에 있어 천안시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공감하기 때문으로 이해됨
-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천안지역의 주민들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산시와의 공동생활권을 통한 상생발전 사업들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공감한다는 점에서 아산시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체 의식이 보다 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2〉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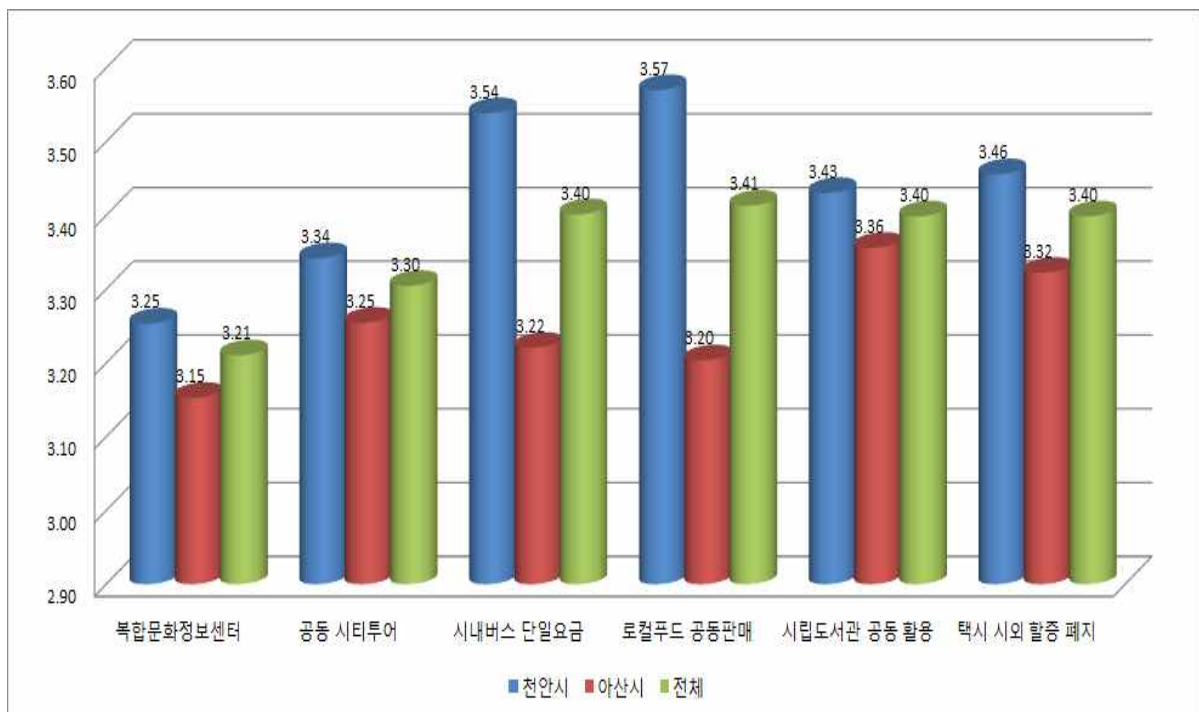
(단위: 5점 만점)



3)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간 연계성

-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은 주민이 현재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를 보다 체감하기 용이함을 의미하고, 사업의 기대효과를 직접 인지하고 사업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님. 현재 추진되는 사업과 주민의 일상생활간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연계성은 보통 이상이나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됨
- 두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로컬푸드 공동판매가 3.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복합문화정보센터는 3.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로 분석되었음
- 천안시의 경우 아산시에 비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로컬푸드 공동판매가 3.57로 가장 높았음. 반면 복합문화정보센터의 경우 3.2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 한편 아산시에서는 시립도서관 공동 이용이 3.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복합문화정보센터는 3.1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그림 3>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간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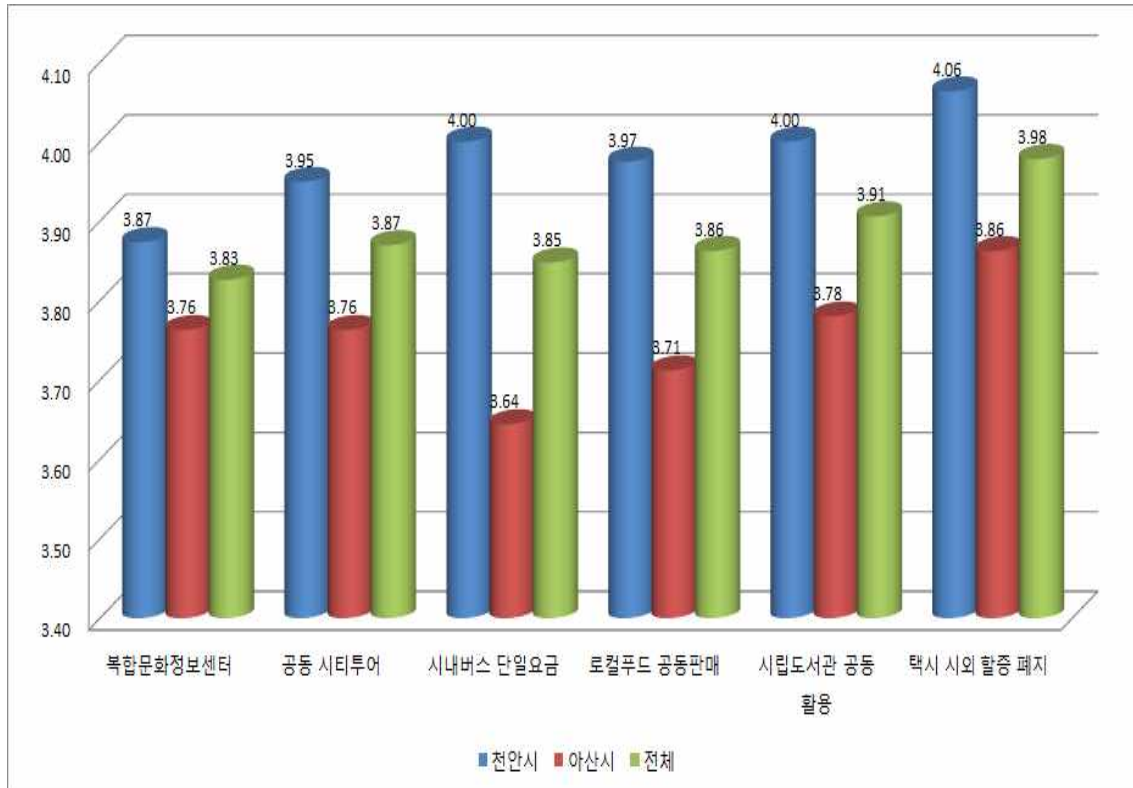


-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본적으로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추진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즉, 지역주민의 요구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세부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의 연계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 수 있음.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역량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사업의 기대효과

- 현재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갖는 기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음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천안시민이 아산시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감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 추진이 주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일정 수준 이상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두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택시 시외 할증 폐지사업이 3.98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반면 복합문화정보센터 건립은 3.8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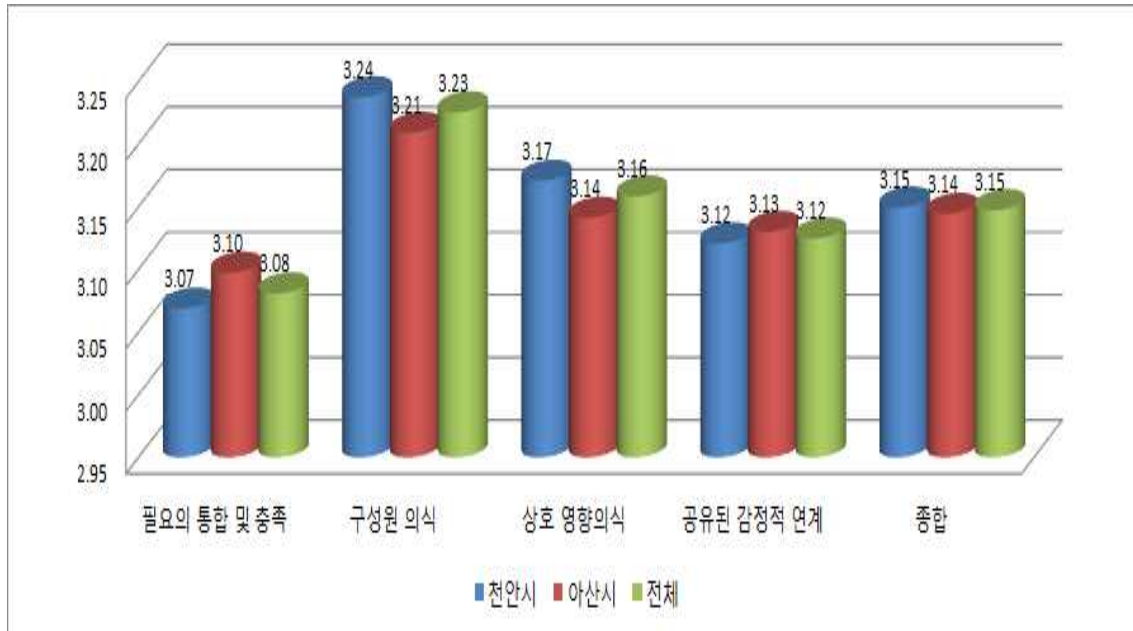
<그림 4> 주민행복생활권 사업의 기대효과



5)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

- 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점수는 3.15로 공동체 의식은 평균 이상으로 평가됨. 특히 공동체 의식을 구성하는 필요의 통합 및 충족, 구성원 의식, 상호 영향의식, 공유된 감정적 연계 중에서 구성원 의식이 3.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양쪽의 주민들이 서로를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른 요인에 비해 강함을 알 수 있음
- 천안시와 아산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각 항목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필요의 통합 및 충족, 공유된 감정적 연계의식은 아산시 주민들이 천안시 주민들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으며, 반면 구성원 의식과 상호 영향의식에 있어서는 천안시 지역의 주민들이 아산시 주민들에 비해 강하게 나타남. 각각의 구성요인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천안시가 아산시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5>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



- 각 구성요인에 있어서 지역 내의 인식은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남. 천안시의 경우 공동체 의식의 구성요소 중 구성원 인식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필요의 통합 및 충족은 3.07로 가장 낮게 도출됨. 한편 아산시의 경우도 천안시와 마찬가지로 구성원 의식은 3.21점으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나 필요의 통합 및 충족은 3.10으로 가장 낮게 도출됨
- 이러한 공동체 의식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일정수준 이상 상대방지역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서로를 같은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서로의 지역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정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로의 지역에 대해 유대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업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고, 사업 자체에는 지지를 보낼 수 있으나, 사업 내용의 구성이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직결되는 사업, 즉,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기대가 낮을 우려가 있으며, 상대방 지역 주민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3. 주민 간 인식의 평균비교검정

-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천안시와 아산시 주민들의 산술평균을 통한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비교검정(t-test)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전술하였던 천안시 주민과 아산시 주민 간 평균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의미가 없이 동일한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천안시와 아산시 주민들의 산술평균을 통한 인식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평균비교검정(t-test)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전술하였던 천안시 주민과 아산시 주민 간 평균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의미가 없이 동일한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음

1)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

- 먼저 사업이해도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천안시 주민과 아산시 주민들이 갖는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 인식에 있어서는 아산시 주민이 사업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천안시 주민의 경우 사업 필요성에 대해 아산시 주민보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즉, 통계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천안시 지역 주민과 아산시 지역 주민이 동일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천안시 및 아산시 지역 주민들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해 일정수준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 지역 주민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음

<표 5>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에 대한 지역간 인식 차이 분석

항목	천안시 평균(표준편차)	아산시 평균(표준편차)	t값
사업 이해도	3.25 (1.43)	3.40 (1.43)	-0.635
사업 필요성	3.61 (1.30)	3.45 (1.44)	0.688

* $p < 0.05$ / ** $p < 0.01$

2)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이 갖는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평균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전술하였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천안시 지역 주민과 아산시 지역 주민의 기대감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복합정보센터를 비롯하여 공동 시티투어, 로컬푸드 공동판매, 시립도서관 공동활용, 택시 시외 할증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 인식에 있어서는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 주민들 간에 차이가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시내버스 단일요금체계 마련에 있어서는 천안시 지역과 아산시 지역의 주민의 인식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음. 즉, 천안시 주민이 시내버스 단일요금 체계 마련에 대해 아산시 지역 주민에 비해 기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됨. 이는 천안시 지역 주민들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필요성에 보다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음
- 특히 아산시의 경우 시내버스 단일요금 체계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천안시의 경우 가장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표 6> 사업 기대효과에 대한 지역간 인식 차이 분석

항목	천안시 평균(표준편차)	아산시 평균(표준편차)	t값
복합문화정보센터	3.87 (1.07)	3.76 (1.08)	0.594
공동 시티투어	3.94 (0.89)	3.76 (1.05)	1.123
시내버스 단일요금	4.00 (0.90)	3.64 (1.06)	2.11*
로컬푸드 공동판매	3.97 (0.96)	3.71 (1.13)	1.473
시립도서관 공동 활용	4.00 (0.94)	3.77 (1.11)	1.252
택시 시외 할증 폐지	4.06 (0.93)	3.86 (1.11)	1.14

* $p < 0.05$ / ** $p < 0.01$

3) 공동체 의식

-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으로 파생되는 편익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될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시내버스 단일요금 체계의 마련에서 아산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의 저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마지막으로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평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표 7>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지역간 인식 차이 분석

항목	천안시 평균(표준편차)	아산시 평균(표준편차)	t값
필요의 통합 및 충족	3.06 (0.90)	3.09 (0.10)	-0.19
구성원 의식	3.23 (1.06)	3.20 (0.91)	0.16
상호 영향의식	3.17 (1.00)	3.14 (0.81)	0.18
공유된 감정적 연계	3.12 (1.00)	3.12 (0.12)	-0.05

* $p < 0.05$ / ** $p < 0.01$

IV. 정책제언

- 주민의 인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필요성과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 주민 홍보전략 마련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소통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됨
 - 기본적으로 사업의 이해도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측면이며, 또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주민생활 밀착형 세부 사업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 주민들이 공동 생활권으로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소통수단 마련이 요구됨
- 양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사업 수행은 기본적으로 아산시와 천안시가 공동 생활권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은 지역 주민들이 상대방 지역에 느끼는 구성원 의식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가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상대방의 시가 자신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자신의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높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순히 ‘우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위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강성권 외 4명(2014), 「지역행복생활권계획 수립」, 부산발전연구원.
- 김동주 외(2010, 2011, 2012),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안영진·박영한 역(2008), 「중심지이론」, 서울 나눔
- 이달곤(2000), 「협상론-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서울 법문사.
- 지역발전위원회(2013),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안건.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지역 연계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위원회.
- Batten, I. (1994), "Network Cities: Creative Urban Agglomeration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32(2): 313-327.
- Camagni, R. and Capello, R. (2004), "The City Network Paradigm: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226: 495-532.
- Capello, R. (2000), "The City Network Paradigm: Measuring Urban Network Externalities", Urban Studies, 37(11):1925-1945.
- Champion, A. G. (2001), "A Changing Demographic Regime and Evolving Polycentric Urban Regions: Consequences for the Size,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City Populations", Urban Studies, 38(4): 657-677.